

폭력문화 제거 평화행사 꾸짐

6·25맞아 여성평화한마당 등 잇따라

반공문화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문화를 일궈내기 위한 '6월 여성평화 한마당' '반핵평화 시민교실'이 6·25동란 발발일을 앞뒤로 열려 관심을 모은다.

6월 여성평화 한마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교조 공동주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고려대에서, 반핵평화 시민교실은 반핵평화운동연합 주최로 20일부터 7월21일까지 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6월 여성평화 한마당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어머니·여성들이 폭력문화·전쟁문화의 잔재를 추방하고 평화와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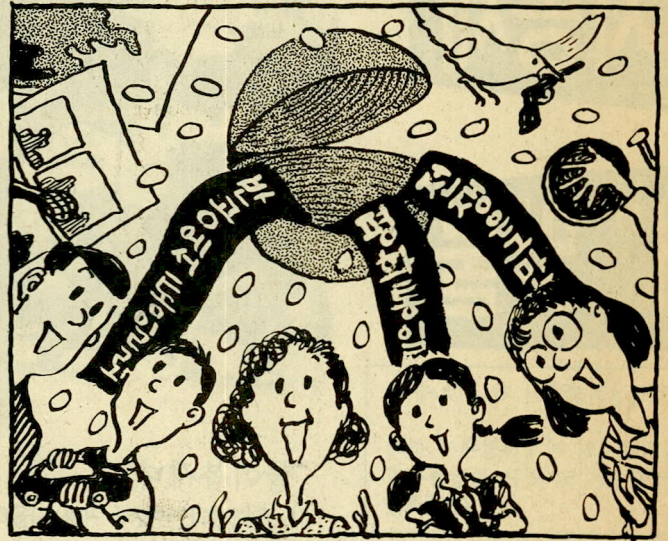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로 마련될 6월 여성평화 한마당은 평화기원곡, 노래공연, 평화통일 염원 박 터뜨리기, 전쟁장난감 바꿔주기, 평화·통일그림전시회, 공동체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여성평화 한마당을 여는 첫 마당은 평화기원곡·춤꾼 이중란(33)씨가 민방위 사이렌소리 각종 시위현장 등 일상생활 속의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지를 춤으로 엮는다. 평화기원곡은 지난 9일 지리산 등반 도중 숨진 시인 고정희씨가 생전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쓴 시 〈그대 돌아오는 날〉 낭

송으로 마무리된다.

“아직 닫지 않은 문 하나 있네 / 끝끝내 밟지 못한 길 하나 있네 /.../ 그대 그 방으로 들어오는 날 /.../ 삼천리 푸른 하늘 가득 / 평화의 깃발 파도치게 하리라 /...”

노래공연에는 가수 정태춘 한돌 안혜경씨, 여성민우회 어머니 노래단, 노래패 노래마을 등이 출연해 우리 삶에 스며 있는 군사·전쟁문화, 핵의 위협, 분단장벽,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지를 담은 〈푸른 하늘을 본 지도 참 오래 되었네〉 〈DMZ〉 〈원폭인생〉 〈너희 나라를 위해〉 등 17곡을 부른다.



어린이 전쟁장난감 '평화 완구'로 대체

“북한 적대감 조장 반공글짓기 대회 잘못” 지적

한반도 반핵운동 필요성 시민강좌열어

이날 여성평화 한마당에선 어린이들에게 평화·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쟁장난감 바꿔주기, 창작만화 그리기, 통일 이야기마당, 공동체놀이 등 어린이잔치도 마련된다. 전쟁장난감 바꿔주기 순서에선 집에 있는 총 대포 전투기 등 무기류 장난감을 (주)삼모 등이 기증한 무선 자동차 등 '평화완구'로 바꿔줄 예정

이다. 창작만화 그리기는 바른만화연구회 회원인 만화가 신영식 이희재 김수정 이진주 이보배 최신오씨 등이, 통일 이야기마당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등 공동체놀이는 놀이연구회 지도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1천원, 737-6891.

여성평화 한마당을 기획한 조화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은 “반공교육과 군사주의 문화 등 냉전이데올로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건강성을 여성들이 들춰내 보이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평화와 통일의 바탕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마다 반공글짓기 웅변대회 포스터그리기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시키

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조 위원장은 “우리 어머니·여성들이 평화·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져 ‘반공의 달 6월’을 ‘평화의 달’ ‘통일의 달’로 바꾸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반핵평화 시민교실은 반핵평화운동연합이 주최하는 평화에 대한 시민공개강좌로, 한반도 긴장구조의 현실과 반핵·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공동대표 김남주씨는 밝혔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에 △한반도 핵무기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미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핵발전소 이야기 △세계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기지존 매춘여성의 현실과 아픔 등 10개의 강좌가 마련된다. 참가비 2만원, 764-9304. <신연숙 기자>